

지역 위한 나눔 홍보대사 역할 '톡톡'

익산 영등1동 정기정 주민자치위원장
모교 · 아동생활시설 후원물품 지원
소상공인 운영 착한가게 홍보 등 나서

영등1동 정기정 주민자치위원장이 지역을 위한 나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정기정 위원장은 올해 들어서만 18개의 착한가게가 연속으로 등록하며 지역에서 착한가게 열풍이 불고 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정기정 주민자치위원장이 있다. 힘겨운 어린 시절을 거쳐 자수성가한 정기정 위원장은 무엇이든 대충하는 법이 없고 어려운 이웃



들에 대한 애정이 넘는다. 평소 모교와 아동생활시설에 장학금과 후원물품 지원, 호우 피해주민 돕기, 출판기념회 수익금 전액 기부 등 많은 나눔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최근 정 위원장은 관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방문하면 항상 착한가게를 홍보하며 나눔을 권하고 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적극적인 홍보에 공감한 지역주민들은 평소 기부와 나눔에 열정적인 그에 대한 신뢰와 애정으로 선

뜻 기부에 동참하게 된다. 영등1동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가치관과 활동으로 마을이 변화하는 생생한 현장이다.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인 정 위원장은 최근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워크숍에서 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회의 참석수당을 적당하여 익산장학재단 및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등 지역의 리더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긍정적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착한가게'는 중소기업의 자영업자들이 매출액의 일부를 모아 매월 3만 원 이상을 기부해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는 나눔 활동에 동참하는 캠페인이다. /익산=정영원 기자

'금융중심지 도약 지역금융산업 기반 조성 공로 인정'

전주시, 퇴임하는 JB금융지주 김한 회장에게 감사패 전달

전주시는 향토은행을 글로벌 은행으로 도약시켜 전주의 명예를 높이고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앞장서온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9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열린 김한 회장 퇴임식에서 JB금융지주 이사진과 계열사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2010년 전북은행장으로 취임해 전주의 명예를 높이고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앞장서온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2010년 전북은행장으로 취임해 전주의 명예를 높이고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앞장서온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2010년 전북은행장으로 취임해 전주의 명예를 높이고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앞장서온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해 기업의 당기 순이익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도 했다.

김한 회장은 이날 "지방은행이 무너지면 지역 사회가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항상 지역경제에 대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룹 운영에 임해왔다"며, "이제 JB금융의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인물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제2의 인생을 살려낸다. 비록 이 자리에서는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우리 지역 사회는 물론 특히 청년층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던 얼마든지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북은행은 전주시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친근한 우리 모두의 은행이자, 전주가 대한민국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게 만든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이 지역 소상공인과 소시민들의 좋은 금융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JB금융지주는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PPCBank를 자회사로 하는 자산규모 48조원 규모의 지방 3대 금융지주(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로, 지난해 11월 전주시·전북도·국민연금공단 등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중심지 지정 및 금융타운 조성 등 전북도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 /송효철 기자



남원소방서, 피난 중심의 피난우선 패러다임 전환 집중 홍보

남원소방서는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난 중심의 선(先) 대피, 후(後) 신고의 피난우선 패러다임 전환 집중 홍보에 나섰다. 물론 소화기 사용법 · 119신고요령 교육도 병행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대피교육을 최우선 한다는 것이다. 이번 홍보는 지난달 청주 플라스타 참가제 공중화재 시 9천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을 참고한 것이다. 보통 화재가 발생하면 화상으로 인한 피해보다 다량의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플라스타공장 화재는 얼마나 빨리 대피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린다. 이철성 현장대응단장은 "외국(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는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사용 등 소화방법 교육에 앞서 비상 대피를 우선해 교육하고 있다며, 초기 소화기 사용은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위력이 있지만, 이제는 생명이 우선이기에 잊지 말고 선(先) 대피, 후(後) 신고"를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인사

전북도선관위

◇승진 ▲행정주사(6급)=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김성경(전, 전라북도선관위 홍보과),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최현두(전, 남원시선관위) ▲행정주사보(7급)=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오종현 ◇전보 ▲행정주사(6급)=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강해나(전, 순창군선관위),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강인철(전, 남원시선관위) ▲행정주사보(7급)=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서재평(전, 전주시완산구선관위),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 이현석(전, 부안 중구선관위) ▲행정서기보(9급)=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이성현(전, 무주군선관위)

전주교육대학교

◇전출인사 ▲김수현 충남대학교 ◇전보인사 ▲모종석 기술사 행정실장 ▲서지형 군산부설초 행정실장 ▲배성중 총무팀장 ▲노희준 교학팀장 ▲정두진 교무팀장 ▲김남영 전주부설초 행정실장 ▲박선미 학술연구팀장 ▲이두례 총무과 ▲장유선 교무과 ▲김혜숙 군산부설초 ▲신경식 학생과 ▲손태경 초등학교연구원 ▲심구보 교육대학원 ◇신규임용 ▲최은영 행정서기보 총무과

전북경찰, 안전한 전북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북경찰이 테러와 강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신고한 무기 소지자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테러와 강력범죄의 위험성이 큰 권총과 소총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 할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30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운영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자진신고 불법무기류 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총격기 등이다. 신고는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무기 소지자가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아울러, 무기 소지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 우편 익명신고 등으로도 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오는 5월 1일부터 무기 소지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원석 전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불법 소지한 총기류로 인한 총기 사고 등 위협을 해소하고, 사회 불안 요인으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불법 총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석훈 기자



익산경찰, 올 경찰발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익산경찰서(서장 박현수)는 최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민·경 협력 차안 강화 및 경찰행정 발전을 위한 2019년도 경찰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서 과장 및 승재관위원장을 비롯한 경찰발전위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년도 익산경찰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시민들이 적극 공감할 수 있는 경찰행정 발전을 위한 향후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현수 서장은, "항상 우리 경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수 있는 익산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발전위원회는 자체 회의를 통해 승재관위원장의 후임으로 한신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전주 송천중고, 코스모스 문화예술봉사단 초청 공연

전주 송천중고등학교(교장 오연호)는 지난 29일 교내 대강당에서 코스모스 문화예술봉사단을 초청하여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했다고 밝혔다. 코스모스 문화예술봉사단(단장 오정숙)은 2008년 결성, 전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곳곳을 누비며 음악과 춤 등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밝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평생에 걸쳐 각자 쌓아온 예술의 결정체들을 하나되어 큰 기쁨으로 함께 하고있다. MC 김민석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학생들이 모든 시름을 잊을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을 통해 즐겼으며 각각각색의 다양한 음악과 춤바 등 재주꾼들의 공연을 접한 학생들은 기립 박수로 호응하는 등 공연장과 청중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장이 펼쳐졌다. /김영태 기자



남원경찰 여성청소년과,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29일 숙박시설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촬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불안감이 고조되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것으로,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해 객실내부와 화장실 등을 점검하였으며, 숙박업소 임주에게는 탐지장비를 구입해 지속적인 자체점검을 독려했다. 또한 불법촬영은 엄연한 범죄이자 신상 정보공개대상임을 알리고, 경고 스티커를 부착·배부하는 등 경각심을 갖도록 다방면으로 홍보 중에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경찰, 경찰관 표창 장려장 수여

무주경찰서(서장 윤종섭)는 지난 29일 서장 및 과 과장 등 직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과 장려장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은 2019년 무주서 음주운전 근절 4행시 콘테스트에 적극적으로 문구를 제시하여 음주운전 예방에 앞장선 수사지원팀 박민경 순경이 받았다. 또한 관내 범죄 취약지 기초전단 및 협력차안단체 관리 유공으로 생활안전계 구준모 경위와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으로 주계파출소 김선용 경사에게 장려장을 수여했다. 더불어 4행시 의무위반 예방문구 제출 유공으로 경무과 경사 정명조, 주계파출소 순경 신일식, 설천파출소 순경 박은혜, 구천파출소 순경 박서영이 장려장을 받게 되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경찰, 노인대학생 교통안전 교육

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는 지난 29일 임실을 노인복지관에서노인대학생 240여명 상대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경찰서 정기주 교통관리계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주제로 이론차·사발이, 자전거, 경운기 안전운행 및 보행안전에 대해 유형별 사고사례와 필요한 유의사항을 동영상 활용 홍보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임실=진종영 기자



전주시 통장연합회, 평화동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봉사활동

전주시 통장연합회(회장 김한철) 회원 10여명은 29일 평화동 꽃밭정이 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중식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통장연합회 회원들은 이날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배식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했다. 전주시 통장연합회는 전주시 35개동 통장회장들이 회원으로 돼있는 단체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통장연합회 봉사의 날로 정해 매월 한 차례씩 전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중식배식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농번기 일손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익산시 상수도과, 생활용수 배수지 청소 실시

익산시(시장 정한울) 상수도과는 맑고 깨끗한 수도물 공급을 위해 4월부터 관내 생활용수 배수지 5개소에 대한 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도법에 따라 배수지 청소를 전문 업체에 위탁해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해 오고 있다. 배수지는 정수처리과정을 거친 수도물을 각 수용가로 공급하는 시설로 이번 청소를 통해 배수지 내부 바닥과 벽면에 쌓인 이물질들을 깨끗이 제거하게 되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수 없이 시행하고, 또한 정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배수지의 벽체균열, 도장부 바리 등의 시설물 점검과 함께 밸브 등 점검도 병행한다. /익산=정영원 기자